4월 2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돼지독감에 약세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돼지 인플루엔자가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약세로 마감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51.29포인트(0.64%) 하락한 8,02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88포인트(0.88%) 떨어진 1,679.41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8.72포인트(1.01%) 하락한 857.51을 각각 기록했다. 약세로 출발한 뉴욕증시는 제너럴 모터스(GM)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직후 장중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음. 그러나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로 장후반 매물이 집중하면서 약세로 돌아섰음.
돼지 인플루엔자로 여행관련주 급락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멕시코에 이어 미국과 유럽국가인 스페인 등에서도 확인되면서 여행관련주가 타격을 받고 있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여행객 감소 우려로 13%나 급락한 가운데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 크루즈라인즈도 14% 가까이 하락했고, 스타우드호텔도 10% 넘게 떨어졌음.
GM, 강도높은 구조조정 계획에 '생존 기대 감도 급등'	제너럴 모터스(GM)가 자구노력 테드라인이 6월1일 예정된 가운데 내년 말까지 강도 높은 생존계획을 새롭게 제시했음. 특히 GM이 이날 제시한 생존계획은 지난 2월 제시했던 구조조정 계획보다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시기도 크게 앞당겨졌음. 이같은 평가에 힘입어 GM의 주가는 20%나 급등했음. GM은 생존계획을 통해 2010년말까지 공장수를 47개에서 34개로 축소하기로 했음. 또 내년말까지 미국의 시급 근로자수를 4만명에서 2만 1,000명으로 감원하고, 2011년중 2,0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음.
中, 포드·IBM 등과 구매계약 체결할 듯	중국의 대규모 구매사절단이 27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포드, IBM, 델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날 중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 발언을 인용, 30여개 미 기업들이 27일 저녁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상무부와 중국 상무부의 합동 포럼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
유럽 돼지독감 감염 첫 공식 확인	스페인에서 돼지 독감에 감염된 환자가 발견되며 유럽에서도 돼지독감 감염 사례가 최초로 공식 확인. 27일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당국은 자국민 1명이 돼지독감에 감염됐으며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

제목	주요 내용
일본 반도체 업체, M&A 돌입	NEC 전자와 르네사스 사가 합병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 현재 일본의 반도체업체들은 매우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업체가 합치게 되면 세계 3위 규모의 반도체업체로 재탄생.
소비심리지수 4년來 최대 상승	한국은행이 전국 2천17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생활에 대한 소비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심리지수(CSI)는 98로 전월의 84에 비해 14포인트 상승. 4월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분기의 1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상승 폭은 2005년 1분기의 19포인트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남.
올해 국내 車생산 6.2% 감소 전망	연구소가 펴낸 '2009 자동차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완성차 생산은 지난해보다 6.2%(23만7,000대) 줄어든 359만대로 추산. 수출은 작년 대비 5% 감소한 255만대, 내수는 9.9% 줄어든 104만대로 전망. 미국 수출은 신차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요 위축으로 10.5%, 서유럽은 이산화탄소(CO2) 연계 세제 도입, 현대차 체코 공장 가동 영향으로 17.6% 각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